한양대학교 2016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

상 경 계

모 의 논 술

수험번호 (   )   성명 (   )

[문제 1번] (가)와 (나)에 제시된 현대 자본주의적 질서의 특징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것을 활용하여 (다)에서 기술된 대중문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하시오. (50점)

(가) 지난 30여 년 사이 공고해진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더 이상의 사회적 구제는 없다"는 피터 드러커의 선언을 사회 운용의 원리 속에, 그리고 대중의 일상 행위 및 사유 속에 체현시켰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질서는 모든 문제의 근원과 그에 대한 책임, 그리고 해법은 '사회'가 아닌 바로 '너 자신'에 있음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주지시킨다. 예를 들어, 건강은 개인적인 관심사이며, 따라서 질병을 미리 대비하거나 병을 치료할 책임 역시 '나'의 문제인 것이다. 교육의 기회는 점점 더 경쟁적 재화가 되고 있으며 더 좋은 교육의 기회를 확보하는 것 역시 당연히 개인적 역량의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여가와 소비, 웰빙(well-being)과 힐링(healing),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각종 보험과 의료 산업, 자기 계발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공적 영역들은 지속적으로 민영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당면하는 무수한 문제들은 관련 산업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무거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인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돌파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나) 이제 우리의 과거사, 우리의 행동들 중에서 '병리적' 행동으로 재구성할 수 없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되었다. 심지어 근면함, 진지함, 신중함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들조차 병리적 행동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근면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훌륭한 덕목이지만 개인의 과거사에 적절하게 조명되면 '강박'으로 재해석될 수 있고, 병리 현상의 자격을 획득한다. 노동자이건 부유층이건 과거의 상처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아동기에 방치되었던 경험, 부모에게 과잉보호 받은 경험, 남모르는 자존감 결핍, 일, 섹스, 음식에 대한 강박 관념, 분노, 공포증, 불안 등은 계급을 따지지 않게 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인 질병이 되었고, 동시에 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이렇게 정신적 고통이 민주화되고 개인화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힐링, 즉 정신 치유가 엄청나게 수지맞는 장사이자 번창하는 산업이 된 것이다.

(다) 최근 텔레비전과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으며, 적지 않은 대중적인 관심을 끌어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트렌드로 '먹방'과 '쿡방'을 들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텔레비전의 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을 가로지르며 음식을 만들고 먹는 행위와, 다양한 요리와 조리의 방식에 관한 재현작업들이 새로운 대세로 확립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상 속에서 낯익은 음식을 스타와 예능인들이 직접 체험의 일부로 만들어내고,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주어진 임무를 군말 없이 수행하기도 한다. 나아가 전문가 집단이 이국적인 레시피(recipe)를 소개하거나, 이들이 수행하는 요리를 둘러싼 치열하고 흥미로운 경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에는 대중문화의 전면에 크게 등장하지 않던 '셰프'들이 새로운 스타군으로 속속 자신들의 얼굴을 알리고 있다. 대중은 스타일과 미각이 발현되는 음식에 열광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일련의 음식의 향연을 접하며, 특히 고단하고 분주하게 내몰리는 삶 속에서 일정한 위안과 더불어 공유되는 체험을 나눈다. 불투명한 미래가 주는 불안감에 떠는 취업 준비생도,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주체도, 가족을 위한 먹거리로 고민하는 맞벌이 주부도 이 과정에 공통적으로 참여한다.

뒷면에 계속 ☞

[문제 2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가) (중간값의 정리) 함수 $f(x)$가 닫힌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a) \neq f(b)$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k$인 실수 c가 열린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나) 모든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고 미분가능하며 그 도함수 역시 다항함수이다.

(다) $y=f(x)$, $y=g(x)$, $y=h(x)$가 미분가능한 함수일 때, 함수 $y=f(x)g(x)h(x)$의 도함수는 $y=f'(x)g(x)h(x)+f(x)g'(x)h(x)+f(x)g(x)h'(x)$이다.

1. 양의 정수 p에 대해 다항함수 $y=(x-a)^p$의 도함수는 $y'=p(x-a)^{p-1}$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 (단, a는 상수이다.)

2. 다항함수 $y=f(x)$는 닫힌구간 $[a,b]$에서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갖거나 또는 항상 음의 함수값을 갖는다고 하자. $a<x<b$인 실수 x에 대해 점 $(x,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m_1(x)$, 두 점 $(a,0)$과 $(x,f(x))$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_2(x)$, 두 점 $(b,0)$과 $(x,f(x))$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m_3(x)$라 하자. 제시문 (가)의 중간값의 정리를 이용해서, 임의의 양의 정수 p, q에 대해, $m_1(c)+pm_2(c)+qm_3(c)=0$을 만족하는 실수 c가 열린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

3. 다항함수 $y=h(x)$는 $a<b$인 상수 a,b에 대해 $h(a)=h(b)=0$이고, 열린구간 (a,b)에서 항상 양의 함수값을 갖는다고 하자. 소문항 2번의 풀이를 이용해서, $h'(c)=0$을 만족하는 실수 c가 열린구간 (a,b)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시오.